



제목	Persian Art in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of Oriental Ar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Karang Publishing Co
발행일	1975. 12.
저자	S. Maslenitsyna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152
ISBN 또는 ISSN	978-1125787380

내용 요약

이 책은 모스크바의 동양예술박물관(Museum of Oriental Art)에 소장된 작품 중 페르시아의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도판과 해설을 담고 있다. 먼저 18세기와 19세기 페르시아의 이젤 페인팅(easel painting)은 궁정 초상화를 주로 담고 있으며, 초상화에 묘사된 당시 복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페르시아 이젤 페인팅의 스타일은 유럽 회화 기법 및 원리와 장식적인 페르시아의 중세 예술이 결합된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세계 회화사에서 인정받는 페르시아의 세밀화는 11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산왕조시대의 세밀화로 유명하며, 이야기의 이미지로서 독립된 그림이 아닌 책의 삽화로 궁정화가들의 집단 창작품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발달한 카페트는 크게 장식적인 문양과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나뉜다. 장식적인 문양은 달리는 동물과 먹잇감을 잡아먹는 큰 짐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고대 문장과 동물 모티브로 활용되었다. 기하학적인 패턴은 동물과 새를 양식화한 것으로 하마단 지역이 유명하다. 페르시아의 세공기술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케메네스 왕조의 등장 이전까지에 쓰인 청동기문화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본문에 수록된 청동유물들은 무기류들을 제외하고 기원전 1000년경 이후 만들어진 유물들로서 장식성이 뛰어난 것들이 많으며 정교하게 만들어져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당대의 실상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 외 페르시아적인 문양이 그려진 도기와 유리 유물을 담고 있다.